

Special Edition 2

한국 육영사업의 '오아시스' 記 최송설당

글. 김형목 (독립기념관 선임연구위원)



생애 최고의 날을 맞이하다

1935년 11월 30일 새벽 벽두부터 경상북도 김천 읍내는 떠들썩한 분위기였다. 김천역은 역사가 생긴 이래 가장 분망한 하루였다. 특히 김천고등보통학교(이하 김천고보) 교직원과 학생들, 송설학원 재단관계자 등은 행사 준비와 각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팽팽한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이날 팔십 고령인 최송설당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가슴 설레기는 마찬가지였다. 파란만장한 인생역정 속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개교 기념식과 신축교사 낙성식, 설립자(교주-필자주) 동상 제막식 등이 차례로 거행될 예정이었다.

김천고보 운동장에는 교직원 37명을 비롯한 전교생 250명, 축하객과 주민 700여 명 등 1,000여 명이 운집하였다. 개교 이래 가장 많은 내빈들이 방문한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오카자키(岡崎) 경상북도 도지사, 와타나베(渡邊) 학무국장,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宋鎭禹), 조선중앙일보 사장 여운형(呂運亨), 조선일보 사장 방응모(方應謨), 변호사 이인(李仁) 등 저명 인사가 총출동한 형국이었다. 노파는 쌀쌀한 날씨에도 아랑곳 없이 해맑은 얼굴로 하객을 맞이하느라 분망하였다.

오아시스 같은 여인으로 찬사를 받다

행사는 1부 신축교사 낙성식과 개교 기념식, 2부 설립자 동상 제막식 순서로 진행되었다. 정열모 교장의 개식사가 끝나자 오카자키 도지사와 와타나베 학무국장의 고사(告辭)가 이어졌다. 설립자 약력 보고와 사업 보고에 이어 각계 인사의 축사가 있었다. 제일 먼저 조선중앙일보사 사장 여운형이 등단하였다. 그는 청중을 둘러본 뒤 최송설당의 김천고보 설립이 갖는 의미를 적절하게 언급했다.

“조선중앙일보를 경영하는 여운형이외다. 최송설당 부인 동상 제막식에 초청받아 축사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경성을 떠나 남으로 내려오는 동안 쓸쓸하고 적막한 지방 상태가 눈에 띄는 것이 마치 저 광활한 사막을 밟는 듯 한 감상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천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

명답이라 할 만한 이 고등보통학교가 뚜렷이 서 있음을 발견함에 오아시스를 만남과 같아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이렇듯 큰 사막 가운데 이러한 오아시스가 일개 부인의 피땀으로 말미암아 건설된 것이고 보니 동서고금의 역사를 들춰보더라도 그 유례가 극히 적은 줄로 생각합니다.



01 동상 제막식에 참석한 송진우·여운형과 함께

우리 사회에는 자신을 위해서는 천금도 아끼지 않으면서 공익사업은 애써 외면하는 부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양심이 있다면 최송설당의 거룩한 동상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서 있는 김천고보 앞을 지날 때 반드시 머리가 숙여지고 무슨 감상이 일어날 것이외다.”

그렇다. ‘사막의 오아시스’라는 표현은 결코 과장되거나 미화된 표현이 아니다. 경북 서부지역 청소년에게 중등교육 수혜라는 ‘희망봉’은 바로 김천고보였기 때문이다.

송진우와 방응모 사장, 이인 변호사도 차례로 등단하여 아낌

없는 찬사를 보냈다. 당대를 대표하는 3대 신문사 사장이 이곳에 모이기는 드문 일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사회자는 추운 날씨로 인하여 변호사 이인의 축사를 끝으로 “이만 축사를 마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갑자기 스님 한 사람이 단상으로 성큼성큼 올라왔다. 사회자와 하객들은 ‘불청객(?)’ 등장에 순간적으로 아연 긴장하는 분위기였다. 마이크를 잡은 스님은 “나는 금강산 유점사에 있는 중인데, 최송설당 여사에게 축사를 한 마디 드리기 위해 일천사백리 길을 일부러 왔으니, 여러분 용서하십시오”라며 축사를 이어갔다. 일순간 행사장은 환희의 물결로 넘쳐나고 있었다. 감동적인 장면은 재학생들에게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교육현장이었다.

동상을 봉정 받은 최송설당은 마지막 남은 재산 3만 원까지 흔쾌히 기부한다고 화답하였다. 이는 학급 증설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장내는 숙연함과 함께 주인공에 대한 경건함이 저절로 샘솟고 있었다. 하객들은 행사장을 떠나갈 듯한 환호성과 박수갈채를 보냈다. 만면에 띤 최송설당의 미소는 자애로움 그대로였다. 값진 인생사가 무엇인 지를 무언중에 일깨우는 현장이었다.

김천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다

3·1운동 이후 개조론은 한국사회를 뒤흔드는 ‘뜨거운 감자’였다. 개인은 물론 사회·민족 등 실력배양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교육열과 항학열은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전국 방방곡곡에서 아우성치고 있었다. 그런데 현실과 달리 교육기관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등학교에서 ‘입학시험’을 치르는 진풍경을 연출하기에 이르렀다. 일부 지역은 입학지원자의 겨우 20%를 수용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였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격이었다. 입학자 중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는 비율도 40%에 불과하였다. 초등학교 졸업생이 지식인으로 인정받는 ‘환상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었다.

중등학교 입시경쟁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명문학교나 비명문학교와 전혀 상관이 없었다. 웬만한 중등학교 입시경쟁률은 10대 1을 훌쩍 넘었다. 입시철마다 탈락한 아우성과 비명소리는 삼천리 곳곳을 ‘쓰나미’처럼 휩쓸었다. 이러한 가

운데 야학이나 강습소 설립에 의한 교육활동은 들불처럼 확산되어 나갔다.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는 구호 아래 마을이나 공장마다 배움터가 새로 생겨났다. 새로움과 변화를 갈구하던 주민들은 한 톨 두 톨 모아둔 ‘피같은’ 성금마저 선뜻 내놓았다.

자녀 교육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식민지배체제의 모순을 뼈저리게 체험하는 계기였다.

김천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결코 예외일 수 없었다. 금릉청년회에서 설립한 금릉학원은 초등과와 중등·사범 과정까지 가르치는 ‘종합교육기관’이었다. 물론 비인가로 교육시설은 미비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다만 열의만은 하늘을 솟아오를 듯한 대단한 기세였다. 중등교육기관 설립은 김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가장 긴급한 현안 중 하나로 떠올랐다. 유지들은 1924년 ‘김천고보기성회’를 조직하는 등 중등학교 설립에 박차를 가했다. 많은 노력에도 재단 설립에 필요한 30만 원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6년 동안이나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이들은 한 번도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 언젠가 숙원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격언은 현실로 성큼 다가왔다. 1930년 2월 하순이었다. 서울 무교정에 사는 김천 출신으로 일흔여섯 노파인 최송설당 기부로 결실을 보게 되었다. 재단 설립자금으로 기부한 재산은 김천·김해·대전 등지의 20만 2,100원에 상당하는 토지와 10만 원 은행예금까지 합한 30만 2,100원이었다. 노파는 평생을 간직한 자식과 같은 재산을 아낌없이 육영사업에 기부하는 용단을 내렸다. 이는 ‘세계사적인’ 대사건임에 틀림없었다. 당시 일간지는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시켰다. 1930년 2월 26일자 『동아일보』 기사는 육영사업에 전재산을 기부하게 된 소박한 심경을 실었다.

“나는 원래 자수성가해 남보다 넉넉히 지내는 편입니다. 얼마 안 되는 재산이나마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02 최송설당 동상



03 『동아일보』 1930년 2월 26일자 기사

하려고 일찍부터 생각했으되 오늘까지 결정을 못하다가 이번에야 겨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김천은 나의 고향인 만큼, 항상 그곳을 생각해 왔습니다. 경상북도는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중등학교가 한 곳밖에 없는 것을 늘 유감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학교가 설립되면 나도 김천으로 이사할 것이며, 김천 지역의 인사들과 협의해서 일을 처리하려 합니다.”

겸손과 겸양으로 일관된 보도에 김천 주민들은 물론 ‘희한한’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찬사를 보냈다. ‘여결’이나 ‘여장부’는 이러한 결단에 어울리는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누구나 김천고보가 하루 속히 설립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이었다.

조선총독부와 담판을 결행하다

학교 설립 계획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경상북도 학무국은 인문계 고등보통학교보다 농업학교나 상업학교 같은 실업학교 설립을 권유하였다. 심지어 재단 설립인가마저도 허가하지 않으려는 고압적인 자세였다. 전권을 위임받은 이한기(李漢麒)·고덕환(高德煥)·김종호(金鍾鎬) 등 ‘수임이사들’은 여러 차례 방문·설득하였으나 똑 같은 대답만 들었을 뿐이다. 진정하는 사람과 이를 거부하는 도당국자 사이에 갈등마저 벌어지는 등 진퇴양난에 봉착하고 있었다.

더욱이 1930년 가을에는 대공황 여파로 쌀값이 폭락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기부한 토지에서 나온 소출로 교사 신축 대금을 치르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공사 대금으로 2만 원 가량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들은 최송설당은 무교정 자택마저 흔쾌히 내놓았다. 저택은 대지 234평으로 시가 2만 3,000원에 달하는 거금이었다. 열성 덕분에 교사 신축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었다.

임시 교사가 완공될 때까지 학무국은 실업학교가 아니면 재단

설립을 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하였다. 새로운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에 직면했다. 최후 수단으로 배수의 진을 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최송설당은 김천고보를 설립할 수 없다면 기부를 철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6월에는 김천 숙소인 정결재로 내려왔다. 이는 수임이사들로 하여금 분발시키는 자극제였다. 그리고 최송설당은 조선총독부 관계자를 만나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총독 부인인 사이토 하루코(齋藤春子)를 만나 협상도 벌였다. 신문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등 우호적인 여론 조성에도 매진하였다. 결국 실업교육을 병행한다는 조건으로 ‘재단법인 송설당교육재단’이 인가를 받았다. 1931년 2월 5일이었다. 3월 17일 김천고보 설립은 조선총독부 고시 제145호로 정식 승인되었다. 재산을 한 톨도 남겨두지 않고 모두 투입하겠다는 결연한 최송설당의 의지가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최송설당 여사가 사재 전부를 이 학교를 위해 내놓고, 그 의기(意氣)가 본부(조선총독부-필자주)로 하여금 감동시켰기 때문에 특별히 김천고보에 설립 인가를 해줌에 이르렀다. 이 인가는 특별한 것”이라는 후대 평가는 아주 적절하다.

3월 27~28일 이틀간 입학시험을 치르면서 본격적인 학사 일정에 들어갔다. 5개 학급으로 인가를 받았으나 입학생은 정원의 50%를 초과하여 선발하였다. 이는 인재육성에 대단한 의지와 무관하지 않았다. 30일 초대 교장으로 안일영(安一英)과 각지에 유능한 교사진을 초빙하였다. 5월 9일 신축한 강당에서 입학식을 거행하는 등 김천고보시대의 첫발걸음을 내딛었다. 입학생은 김천을 중심으로 상주·선산·성주·고령·의성 등지는 물론 멀리 동해안 지역에서 몰려들었다.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다

이제 최송설당은 육영사업의 ‘어머니이자 여장부’로서 거듭나고 있었다. 전국적인 대스타로서 태어났다. 하지만 재산 축적 과정은 철저한 베일 속에 가려진 ‘신비스러운’ 존재 그 자체였다. 대단한 거부라는 소문만이 무성한 만큼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인물이었다. ‘송설당’이라는 호를 고종황제가 하사하였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사실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송설당집』의 ‘창송(蒼松)’은 곧바로 송설당 호를 떠올리게 한다.

